

영어보충어의 문장성분적특성

교수 박사 리 정 숙

1. 서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어를 잘하려면 단어를 많이 아는것과 함께 외국어문법학습을 잘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전집》 제1권 221페이지)

최근 국내의 영어리론연구에서는 영어보충어(complement)에 대한 문제가 전문가들 속에서 각이한 양상을 띠고 제기되고있다. 영어에서 보충어에 대한 문제는 영어문장성분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영어보충어에 대한 이해를 바로가지는것은 영어문법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문장성분들에 대한 교육의 이론적기초를 과학화하는데서 필수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본문에서는 국내외의 학자들속에서 연구되고있는 영어보충어에 대한 선행연구의 제한성을 분석하고 영어리론교육에서 제기되고있는 보충어의 개념과 문장성분적특성, 한계성문제에 대하여 밝히려고 한다.

1.1. 영어보충어와 관련한 선행연구분석

20세기초부터 현재까지 영국의 문법학자들이 발표하거나 집필편찬한 논문이나 사전, 참고서나 교과서들을 보면 대다수가 문법적술어로서의 보충어를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서술하고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오늘날 문장성분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오고있다.

영어보충어에 대한 이론은 우선 영국에서 출판된 문법참고서들과 사전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세기 중엽 현대영어학계의 대표자들인 랜돌프 퀴크(Randolph Quirk)와 시드니 그린바움(Sidney Greenbaum), 조프리 리취(Geoffrey Leech)와 잔 스바르트비크(Jan Svartvik)가 공동집필한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현대영어문법)(Longman House, 1972)에서는 영어보충어에는 4가지 기본류형 즉 intensive complementation(강조보충), monotransitive complementation(1가타동사보충), ditransitive complementation(2가타동사보충), complex complementation(복합타동사보충)이 있다고 하면서 매 류형에 속하는 실례들을 주었다.

이 도서에서는 동사를 보충해주는 문장성분을 보충어로 보았다.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the English Language》(Cambridge, 1996)에서는 영어문장성분을 주어, 술어, 보어, 보충어, 상황어로 나누어보면서 《보충어는 문장의 다른 성분들 즉 주어와 보어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데 이것들을 주어보충어, 보어보충어라고 한다. 주어보충어는 보통 주어와 술어뒤에 놓이는데 이때 동사는 대체로 be동사를 비롯한 계사(linking verb)들이 리용된다. 그리고 보어보충어는 보통 직접보어뒤에 놓이면서 그 보어의 의미를 보충해 준다. 보충어로는 명사(구), 형용사(구), 대명사, 종속절 등이 될

수 있다. 보충어가 명사구일 때 보충받는 성분과 수를 일치시킨다.》고 서술하였다.

이 사전에서는 문장에서 계사와 어울려 합성술어를 이루고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술사적성분과 보어를 설명해주는 보어술사를 보충어라고 정의하였다.

《The New Oxford Dictionary of English》(Clarendon Press Oxford, 1998)에서는 보충어가 술어와 관계되는것으로서 술어를 의미적으로 완성시켜주는 성분이라고 정의하였다.

《Grammar and Composition Handbook》(New York, 2000)에서는 《영어보충어는 동사의 의미를 완결해주는 단어나 단어군(word group)인데 여기에는 4가지 유형 즉 직접보어, 간접보어, 주어보충어(subject complement), 보어보충어(object complement)가 있다.》고 하면서 매 유형의 구체적인 특성들에 대하여 여러 실례들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이 사전에서는 문장의 모든 성분들이 다 술어의 의미를 완성시켜주는데 참가하기때문에 보충어로 볼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Colins Cobuild York Learner's Dictionary》(The University of Birmingham, 2000)에서는 《영어문법에서 말하는 계사보충어란 동사뒤에 놓이면서 주어의 특징에 대하여 묘사하거나 명백히 해주는 형용사구나 명사구를 의미한다.》고 밝히었는데 실례로 《They felt very tired.》《They were students.》라는 문장들에서 very tired와 students는 문장의 주어인 they에 대한 보충어로 즉 주어보충어로 된다고 서술하였다.

이 사전에서는 문장에서 계사(be)와 어울려 합성술어를 이루는 술사를 보충어라고 정의하였다.

영어보충어에 대한 리론은 또한 국내에서 출판된 도서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영어학통론》(대학용)(외국문도서출판사, 주체105(2016))에서는 보충어의 개념에 대하여 《영어서술문법에서는 문장의 진술성보장의 견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론적단위인 주어와 술어, 보어의 의미에 덧붙여지는 어휘문법적단위들을 통털어 보충어라고 한다. 문장에서 보충어로 되는 성분들은 주어술사, 보어, 상황어와 복합보어의 둘째 부분 즉 보어술사이다. 보충어는 주어와 보어와도 관계되기때문에 이때에는 각각 주어술사, 보어술사라고도 한다. 보어와 상황어도 엄밀히 말하여 보충어이지만 그 술어를 전통적으로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서술하고 그에 대한 실례들을 주었다. - 예: You should keep the cabbage fresh.

선행문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필자들은 문장을 의미구조적으로 보충해주는 경우와 술어를 의미구조적으로 완성해주는 경우를 다 포괄하여 보충어의 의미기능으로 보았다. 여기서 문장에 대한 의미구조적보충현상은 영어문법에서 일반적으로 정의하고있는 보어, 상황어, 규정어의 의미기능에 대응되며 술어에 대한 의미구조적보충현상은 《계사-술사》관계에서 술사의 의미기능에 대응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해볼수 있다.

첫째로, 보충어는 술어와 관계되며 보다 정밀하게 표현한다면 합성술어를 이루는 계사와 어울린다는것이다.

둘째로, 술어가 통술하는 모든 문장성분들이 다 보충어로 될수 있다는것이다.

셋째로, 영어보충어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일정하게 차이가 있다는것이다.

영어리론과 문법에 대한 연구가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되지 못하고있던 때에는 보충어에 대한 개념이 이와 같이 룬곽적으로 주어졌지만 세계적으로 언어학연구가 심화되고 발전함에 따라 영국학자들속에서도 보충어의 개념에 대한 연구가 점점 정밀해지고있다.

영어보충어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들의 제한성은 술어로서의 문장성분을 의미구조적

으로 보충완성해주는 보충어적쓰임과 술어밖에서 다른 문장성분들과 의미구조적으로 결합하여 문장의 전일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의미보충현상을 동일한 성격의 보충어적쓰임으로 본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우리가 진행하는 학교문법내용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계사-술사》관계에서의 술사적쓰임과 주어, 보어, 상황어 등 문장성분들의 쓰임을 동일한것으로 본것이다.

명백한것은 합성술어를 이루는 술사와 이여의 문장성분들의 지위가 같지 않은것이다.

그것은 문장을 이루는 모든 문장성분들은 의미구조적으로 자립적이며 그 쓰임에서 독자성이 있지만 술사적성분은 자립성과 독자성이 없기때문이다. 술사적으로 쓰이는 보충어와 다른 문장성분들의 지위와 역할이 서로 다르다는데 두 개념을 구분하여보아야 하는 이론적근거가 있으며 영어보충어에 대한 학술적연구를 보다 과학화, 원리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것이다.

국내영어리론들에서 영어보충어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가 제기되고있는것은 바로 이와 같은 지난 시기의 영국학자들의 영어보충어에 대한 여러가지 복잡한 견해에 기인된다고 볼수 있다. 결국 국내의 영어전문가들이 영문도서들에서 complement(보충어)라는 용어와 자주 맞다들리게 되는것이 계기점이 되어 학술적인 깊은 연구가 없이 지난날의 문헌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본다.

현재 국내의 영어리론연구에서 영어보충어와 관련하여 나타나고있는 편향적인 견해는 영국사람들의 리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충어를 주어, 술어, 보어, 상황어, 규정어와 함께 하나의 독자적인 문장성분으로 취급하는것이며 보어, 상황어, 규정어, 독립분사구문까지도 다 보충어로 볼수 있다고 하는것이다.

세계적으로 언어학의 미지의 세계가 많이 밝혀지고 언어학의 발전이 뚜렷해지고있는 오늘날에 와서 우리는 외국의 언어리론을 연구하고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것들을 그대로 답습할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립장에서 과학리론적으로, 객관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가장 정확한 지식을 우리의 외국어교육에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국내의 영어문법교육에서 주어, 술어, 보어, 상황어, 규정어를 영어의 기본문장성분으로 규정하고 체계화하여 교육하고있는 현시점에서 모든 문장성분들을 다 보충어로 보고 확대하는것은 현재 진행하고있는 학교문법의 범주들과 내용들에 일정한 혼동을 줄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오늘날 영어리론연구에서는 영어보충어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학술적연구가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보충어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교영어문법에서 취급하고있는 전통적인 영어문장성분들의 체계와 뒤섞어놓지 않는 원칙에서 진행하여야 할것이다.

1.2. 영어보충어에 대한 문제점제기

론문에서는 영어보충어에 대한 선행연구자료들의 연구분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밝히려고 한다.

첫째로, 영어보충어연구의 기초리론으로서 문장성분들에 대한 학술적분석

둘째로, 영어보충어에 대한 리해

셋째로, 영어보충어의 한계성문제

2. 본 론

2.1. 영어보충어연구의 기초리론으로서 문장성분에 대한 학술사적분석

영어보충어에 대한 이해를 바로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먼저 문장성분들에 대한 옳은 이해를 가지는것이다.

문장성분은 일정한 뜻과 기능을 가진 문장의 구조적단위로서 문장안에 있는 단어 또는 단어결합들이 전일적인 구조속에서 수행하게 되는 문장론적기능과 론리-의미적관계를 고려하여 나눈 문장의 구성성분들이다. 다시말하여 문장성분은 문장안에서 단어들을 각이한 문장론적기능에 따라 분류해놓은 문장의 최소구성단위이다. 실례로 주어, 술어 등의 문장성분은 문장구성에 참가하는 단어나 단어결합들을 그 문장론적기능에 따라 분류해놓은것이다.((《조선어문장성분론》 조선어학전서 28. 사회과학출판사, 주체94(2005))

문장속에 들어간 단어들은 그것들이 문장에서 어떠한 기능을 노는가에 따라 여러가지 문장성분으로 구분된다.

문장의 기본재료로 되는 단어는 일정한 어휘적의미를 가진 하나의 명명적단위이면서 문장구조속에서는 다른 단어와 문법적관계를 맺는 하나의 기능적단위로 되는데 이러한 기능적단위를 문장성분이라고 한다.

문장안에서 단어가 어떤 성분으로 되는가 하는것은 그 단어가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 어떤 문장론적상관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개별적인 단어들이 하나의 문장성분을 이루는 경우 그것을 《단순성분》으로, 구결합으로 하나의 문장성분을 이루는 경우에는 그것을 《확대성분》으로 볼수 있다. 이것은 전일적인 문장구조에 들어가기 이전의 구성재료에 불과하며 절의 형식을 취한것이라 하여도 내부의 단어호상관계는 문장성분의 관계로 될수 없으므로 다시 문장성분으로 구획되지 않는다.

문장처럼 긴 단어결합까지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보는것은 조선어와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문장구성의 단계적특성으로부터 제기되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볼수 있다.

문장의 단계적특성에 대한 문제는 문장의 구조적중심으로부터 출발하여 볼수 있다.

문장은 술어라는 하나의 성분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언어의미실현의 구조적단위이다.

문장성분들가운데서 술어이외의 성분들은 단독으로나 서로 결합해서나 정상적인 문장을 이룰수 없으며 반드시 술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서만 문장의 체모를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술어는 문장의 구조적중심으로 되며 문장의 핵심으로 된다.

문장의 기본성분은 문장의 줄기를 이루는 성분으로서 문장구조의 중심인 술어와 그에 직접 연결되는 1차적구조의 성분들이다. 여기에는 술어, 주어와 함께 보어(직접보어, 간접보어), 상황어 등이 있다.

문장의 기본성분들에서 문장의 기본골격을 이루어주는 주성분은 주어와 술어이다.

주어와 술어가 문장의 주성분이라는것은 그것들의 역할이 동일하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진술성을 이루는 문장에서 진술되는것으로 앗혀지는 주어와 진술하는것으로 맞물려

지는 술어는 문장의 골격을 이루면서 서로 밀접한 련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흔히 언어행위에서 문장의 주어로 내세워지는 대상은 일정한 련관을 가진 술어와 결합할것을 전제로 하며 그래야만 문장의 진술내용이 옳바로 이루어지게 된다.

문장성분들에서 주성분과 부성분의 구분은 초보적인 이야기가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기준이 아니라 문장에서 골격을 이루는가 이루지 않는가 하는 기준에 의한것이다.

부성분은 문장의 구조적골격에 살을 붙여주는 성분이다. 부성분에는 보어, 상황어, 규정어가 속하게 된다.

문장에서 주성분과 부성분은 문장으로서의 구조적짜임새를 갖추는데서의 역할에 의한 구분이지 그것이 문장에 담겨지는 의미적질량의 중요성에 따르는 구분이 아니다. (《조선어문장성분론》 조선어학전서 28. 사회과학출판사, 주제94(2005))

이상과 같은 문장성분들의 기능구조적특성에 기초해서 영어보충어의 개념과 그 기능에 대하여 설명할수 있다.

2.2. 영어보충어에 대한 리해

2.2.1. 영어보충어의 개념

영어보충어에 대한 리해를 위해서 이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는 영영사전의 정의를 인용할수 있다.

영영사전 《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Oxford University Press, 2005)에서는 보충어(complement)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보충어란 be나 become과 같은 련결동사뒤에 쓰이는 단어나 구 특히 그러한 형용사나 명사를 의미하는것으로서 그 동사가 풀이하는 주어를 설명해준다. 일부 문법서술들에서 보충어는 동사가 관할하는 단어나 구를 가리키는것으로서 보통 문장에서 동사뒤에 놓인다. 실례로 <I'm angry.>, <He became a politician.>이라는 문장들에서 형용사 angry와 명사 politician은 보충어들이다.》

사전에서 서술한 정의에 의하면 영어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보충어의 개념은 영어문장에서 술어와 관계하는 성분적요소라고 말할수 있다.

이것은 보충어가 문장을 구성하는 직접적인 성분은 아니고 개별적인 문장성분(특히 합성술어)을 의미구조적으로 완성하고 자립성을 부여해줌으로써 문장론적구실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분적요소라는것을 보여준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영어보충어는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술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형태의 동사부류를 문장에서 술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게 어휘의미적으로, 구조적으로 보충완성해주는 성분적요소라고 정의할수 있다.

영어에서 보충어가 어울려 쓰이는 동사들은 독자성이 없는 비자립적인 동사들이다.

례: The boy is very intelligent. — 그 소년은 매우 총명하다.

례문에서 보는것처럼 동사 be는 자체의 어휘적의미는 약하게 나타내면서 주어의 상태를 내용적으로 보충해주는 형용사와 결합되어 합성술어로서의 문장론적인 역할을 한다.

2.2.2. 영어보충어의 형태

영어문장들에서 합성술어를 이루는 보충어는 형용사(구), 명사(구), to 미정사구, 과거 분사, 현재분사, 전치사구, that절 등의 형태로 된다.

- ① He kept silent. (형용사) — 그는 침묵을 지켰다.
- ② A horse is a useful animal. (명사구) — 말은 유용한 동물이다.
- ③ He seems to know us. (to 미정사구) — 그는 우리를 아는것 같다.
- ④ He appeared pleased to see you. (과거분사) — 그는 동무를 보고 기뻐하는것 같았다.
- ⑤ He kept reading all night. (현재분사) — 그는 밤새껏 책을 읽었다.
- ⑥ The telephone was out of order. (전치사구) — 전화가 고장이 났다.
- ⑦ The problem is that he did not know the fact. (that절) — 문제는 그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것이다.

2.2.3. 영어보충어의 결합적특성

영어에서 보충어와 결합하는 동사들은 보충어의 어휘적의미를 다양하게 꾸며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① 상태를 나타내는 비자립동사들
His uncle is a famous scientist. — 그의 삼촌은 이름난 과학자이다.
He lay motionless. — 그는 꼼짝 안하고 누워있었다.
 - ② 감각을 나타내는 비자립동사들
The food tastes good. — 음식이 맛이 좋다.
The cloth feels smooth. — 그 천은 손맛이 부드럽다.
 - ③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비자립동사들
He kept silent while I was speaking. — 그는 내가 말하는 동안 침묵을 지켰다.
He stood firm in his opinion. — 그는 자기의 견해를 꺾듯이 고수하였다.
 - ④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비자립동사들
He soon fell asleep. — 그는 곧 잠들었다.
His blood ran cold. — 그는 오싹해졌다.
 - ⑤ 삶과 죽음의 뜻을 나타내는 비자립동사들
He lived single. — 그는 독신으로 살았다.
He died a hero. — 그는 영웅으로 죽었다.
 - ⑥ 결과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비자립동사들(《...으로 판명되다, 알고보니 ...이다》의 의미)
The plan turned out a success. — 계획은 성공하였다.
The rumour proved true. — 그 소문은 사실이었다.
- 일부 비자립동사들은 to be와의 결합형태로 되어있는 보충어와 함께 쓰인다.
- He seems to be ill. — 그는 앓는것 같다.
- He appears to be healthy. — 그는 건강한것 같다.
- 보충어가 자립동사와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도 있다.
- He came back home safe. — 그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2.3. 영어보충어의 한계성

앞에서 본 보충어의 개념과 그 쓰임에 대한 내용은 영어보충어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라고 본다.

선행리론들에서 본것처럼 모든 문장성분들을 술어가 다 통솔한다고 하여 보충어로 보는것은 비과학적이라고 본다.

그러면 영어에서 보충어적쓰임의 경우를 어떻게 한정할수 있겠는가.

명백한것은 영어에서 보충어는 어디까지나 문장의 술어를 보충완성해주는 성분적요소라는것이다.

그러나 문장에서 술어는 술어로 쓰이는 동사들의 의미구조적특성에 따라 문장성분들에 대한 결합적특성을 가진다. 다시말하여 의미구조적으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들에 대한 결합적특성이 있다.

실례로 2.2에서 취급한 합성술어들은 1항술어들이다. 여기서 항(argument)은 문장에서 술어를 제외하고 주어와 그것과 대등한 요소를 말한다.

한편 영어에는 여러개의 항을 요구하는 동사들이 많다.

례: We elected him a chairman. — 우리는 그를 위원장으로 선거하였다.

이 문장에서 술어동사 elect는 him과 a chairman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3항술어동사이며 chairman은 him이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기때문에 him이 없으면 그 존재 역시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chairman은 문장성분인 보어 him을 의미적으로 설명해주며 문장론적으로 보면 동사 elect의 필수적인 의미구조적성분요소라고 말할수 있다.

영어에서 이러한 형태의 보충어적쓰임을 취할수 있는 동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appoint, crown, elect, proclaim, have, keep, find, leave, call, make, name, declare, confess, pronounce, admit, think, suppose, imagine, fancy, believe, see, hear, feel, like, order...

례: The performance made the people pleased. — 공연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

I found the book interesting. — 그 책을 읽어보니 재미있었다.

He left the door open. — 그는 문을 열어놓은채로 두었다.

위의 실례들에서 pleased, interesting, open은 각각 보어들인 the people, the book, the door를 의미적으로 설명해주는것으로서 학교문법에서 보어술사에 대응되는 성분적요소로 되며 문장의 견지에서 보면 술어를 의미구조적으로 완성해주었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보충어로 볼수 있을것이다.

또 다른 경우의 실례들을 찾아볼수 있다.

례: Victory is belived to be ours. — 승리가 우리의것임을 확신한다.

He is considered (to be) an experienced engineer. — 그는 경험있는 기사로 인정되고있다.

The delegation is reported to arrive this evening. — 보도에 의하면 대표단이 오늘 저녁에 도착한다고 한다.

The factory is said to have been built last year. — 그 공장은 작년에 건설되었다고 한다.

위의 실례들은 복합보어문장의 피동형쓰임이다. 실례들은 보충어들이 술어를 의미구

조적으로 보충완성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는것을 더욱 명백히 보여준다.

국내의 일부 이론들에서는 보충어의 개념을 논할 때 문장을 의미구조적으로 보충완성시켜주는 모든 성분들을 다 보충어로 보는 경향성이 있다. 즉 보어, 상황어, 규정어 지어 분사구문까지도 보충어로 보는 경우가 있다.

또한 영어문장성분에 주어, 술어, 보어, 상황어, 규정어와 함께 보충어라고 하는 문장성분이 더 있는것으로 리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영어에서 보충어범주의 한계성문제는 심중하며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우에서 연구분석한바와 같이 영어에서 보충어는 문장에서 술어의 형태를 의미구조적으로 완성하여 자립적인 문장성분으로서의 구조를 갖추고 문장론적역할을 하게 하는 성분적요소이며 따라서 자립적인 다른 문장성분들과 한계렬에 놓일수 없다고 본다.

3. 결 론

영어보충어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통하여 영어에서 보충어의 문장성분적특성을 다음과 같이 밝힐수 있다.

첫째로, 영어에서 보충어는 문장성분으로서의 자립성과 독자성이 없다.

둘째로, 영어에서 보충어는 문장의 술어를 의미구조적으로 완성해준다.

셋째로, 영어에서 보충어의 형태는 문장에서 술어로 쓰이는 계사들의 의미구조적특성에 기인된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외국어리론에 대한 연구를 주체적립장에서 과학리론적으로 깊이있게 진행함으로써 외국어교육의 과학리론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보충어, 문장성분적특성, 성분적요소